

지역민 작년 14조원 끊었다

올 8월까지 신용카드 사용 9조4천억...전년비 6.5% 증가

불황에 학원·보험료 줄여 '짠물소비'

광주·전남 지역민들은 지난해 한 해동안 총 13조5525억원을 신용카드 사용으로 나타냈다. 올해 들어서는 카드 사용이 더 늘어 지난 8월까지 9조4309억원을 썼다. 지난해 같은 기간 8조5688억원보다 6.5% 늘어난 금액이다.

경기불황으로 위축된 소비심리가 카드 씬씀이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불황에도 줄이지 않는다는 교육비도 줄었고 보험을 끼는 것은 물론 건강식품도 사먹지 않았다.

식비, 기름값 등 필수 소비항목의 지출 부담이 커지면서 전체 카드사용액이 줄지는 않았지만 카드사용액 증가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13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을 통해 '지역별 소비유형별 개인 신용카드 사용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2년 8월 광주지역 신용카드 사용액은 6577억9900만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 늘어난 것으로 증가율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 1~8월까지 광주지역 카드 누적 사용액은 5조3716억9100만원이었다. 카드 사용액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주유비로 올 8월까지 주유소에서 모두 7165억7000만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용액의 13.3%에 해당한다. 기름값 고공행진 여파로 1~8월까지 주유비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3%나 늘었다.

주유비와 함께 카드사용 비중이 높은 외식비(12.3%)도 6630억8100만원으로 불가상승 여파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6% 증가했다.

하지만 학원비와 보험료는 줄었다. 올 8월까지 광주지역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는 2188억43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9%나 줄었으며, 금융보험에 지출된 금액(3억2100만원)도 같은 기간 15.7%나 하락했다.

건강식품 구입 비용도 210억56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6%가 감소했다.

지역민들의 씬씀이가 줄면서 백화점 매출도 감소했다.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백화점에서 지출한 돈은 4527억8400만원으로 같은 기간 2.9%가 감소했다. 특히 8월 한달 사용액은 407억1000만원으로

역별 통계가 작성된 2009년 12월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백화점 카드 사용실적이 가장 많았던 2010년 11월(749억4100만원)의 60% 수준에 불과했다.

반면 지난1~8월까지 대형마트 등 할인점 사용 금액은 모두 4561억43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가 증가했다.

전남의 경우 올 1~8월까지 카드 누적 사용액은 4조592억9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전체 카드 사용금액 중 주유비(1조16억5200만원)가 24.6%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외식비(6059억1900만원)가 14.92%를 뒤 이었다.

학원비(983억4000만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1%나 줄었고 건강식품 구입금액(99억2800만원)도 같은 기간 33.8%나 급감했다.

특히 1년 사이 병원비 지출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종합병원(-12.3%), 일반병원(-31.2%), 기타 의료기관(-41.5%) 등에서 카드 사용 실적이 감소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우리 지역 제품 좋습니다” 13일 (주)광주신세계 1층 광장에서 '광주·전남 농공상 중소기업 제품 박람회'가 열려 조창현 광주신세계 대표이사를 비롯해 이의준 광주·전남지방 중소기업청장 등 주요인사가 참석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주)광주신세계 제공

영업용 차 보험료 3.9% 기습 인상

손보사 “손해율 급등 때문”...개인은 내달 인하

일부 손해보험사가 서민들이 생계용으로 이용하는 영업용 차량 보험료를 슬그머니 올린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흥국화재는 올해 상반기에 영업용 자동차보험료를 3.9% 인상했다. 영업용 차량은 버스, 택시, 화물차 등을 의미한다. 보험료 인상 대상자는 생계난을 겪는 영업용 차량 운전자가 많다.

손보업계 빅3인 삼성화재, 현대해상과 동부화재는 영업용 자동차보험료를 올해 들어 조정조차 하지 않았다. 영업용 자동차보험 부문에서 손

해율이 치솟는 상황에서 여유가 없다는 이유다.

롯데손해보험, 그린손해보험도 2년째 동결이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화물차나 택시 등은 사고가 잦아 수익 구조를 맞출 수 없어 보험료를 내리기 어려운 구조”라고 밝혔다.

이들 손보사가 수익성 제고를 위한 조치라 항변하고 있으나 영업용 자동차보험료를 내린 업체도 적잖아 설득력이 떨어진다. 지적을 받는다.

메리츠화재는 지난 7월 영업용 자동차보험료를 2.8%, LIG손해보험은

0.5%, AXA다이렉트손해보험은 3.2%, 하이카다이렉트는 2.6%를 각각 내렸다.

지난 4월부터 내린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도 격차가 컸다.

에프고다음이 3.1%로 인하 폭이 가장 컸고 흥국화재(-2.9%), 삼성화재·동부화재·메리츠화재(-2.6%), 현대해상·LIG손보(-2.5%), 한화손보(-2.2%), 롯데손보(-1.8%), AXA다이렉트(-1%) 순이었다. 일부 대형 손보사는 태풍과 폭우가 강타한 지난 8, 9월과 행락철인 10월에 손해율이 80% 수준으로 안정을 찾자 내달 중 자동차보험료를 추가로 내릴 계획이다. 인하 수준은 상반기와 비슷한 2% 정도가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상품 살때 제조국가 본다”

소비자 75%

제조국가의 이미지가 상품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최근 전국 소비자 514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4.5%가 상품 구매 때

제조국가의 이미지를 고려한다고 답했다. 국가이미지를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해당 국가의 경제규모, 대표 기업(31.1%), 정치·외교(17.1%), 과학·기술(11.3%), 전통문화·예술(8.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국가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도 글로벌 기업의 선전(27.4%)이 가장 많이 꼽혔다. 부정적인 요인으로는 35.2%가 정치 갈등을 지적했다.

대한상회의는 이에 대해 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나 경제적 위상이 국가 이미지 형성에 점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같은 가격과 품질이라면 어느 국가의 상품을 구매할 것이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23.3%는 국산을 꼽았다. /연합뉴스

한우 반값 할인 광주축협 18일까지 20~50%↓

광주축협(조합장 안명수)은 오는 18일까지 매일 9시부터 화동 분점 하나로 마트와 주월동 한우지매장에서 한우 암소 소비확대를 위한 할인행사를 갖는다. 이번 행사는 한우고기 소비를 늘려 산지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 농가를 돕고, 한우산업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기간 동안 불고기, 국거리, 장조림용 1등급 암소 한우고기 100g당 1700원에 할인 판매한다. 또 등심과 안심, 사골, 꼬리, 우족 등도 최고 50~20%까지 대폭 할인 판매한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광주은행 中企 대출 7조원 돌파

광주은행(은행장 송기진)은 12일자로 중소기업 대출 7조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광주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은 지난 2008년 송기진 은행장 취임 후 2008년 5조2611억원, 2009년 5조 5555억원, 2010년 5조6762억원, 2011년 6조 2567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특히 2011년도에는 5805억원이 늘었으며 올해 12월 현재 무려 7511억원이 증가했다. 이같은 실적은 광주

전남지역의 취약한 경제구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로 인한 지역 유수 중소기업의 기업회생 및 워크아웃 진행 등 어려운 여건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의미가 크다.

광주은행은 ‘광은하이플러스터너’, ‘2012 중소기업특별대출’ 등 다양한 중소기업 전용 대출 상품을 개발해 중소기업에 지원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지방자치 단체와 협약을 맺어 적극적으로 중소기업 금융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올 자금사정이 어려운 지역소재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위해 ‘5000억원 특별 금융지원한도’를 설정해 현재 3000억원을 지원했다.

이정화 기업영업전략부 부장은 “기업대출 7조원 돌파를 계기로 광주은행은 다양한 금융정책을 펼쳐 지역 중소기업의 확고한 금융파트너로 자리매김 할 것이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모바일뱅킹 3300만명 이용

스마트폰 보급 확산에 힘입어 올해 3분기 모바일뱅킹 등록 고객이 3300만명을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13일 내놓은 ‘2012년 3분기 국내 인터넷뱅킹서비스 이용현황’을 보면 9월 말 현재 19개 금융기관에 등록된 모바일뱅킹 고객수(동일인 중복합산)는 3300만4000명에 달했다. 지난 6월 말 3000만명에 비해 9.9%(298만명)나 늘었다.

이 가운데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뱅킹 등록고객은 1984만명으로 전분기보다 18.2%(305만명) 늘어 전체 모바일뱅킹 증가세를 견인했다.

모바일뱅킹 실적을 보면 하루평균 이용건수는 전분기보다 9.9% 늘어난 1330만건, 이용금액은 전분기 대비 7.1% 증가한 9734억원이다.

모바일뱅킹 가운데 스마트폰 기반 서비스의 비중은 하루평균 기준으로 이용건수는 1325만건(99.7%), 이용금액은 8913억원(91.6%)이다. 모바일

뱅킹 서비스의 대부분을 스마트폰이 접한 것이다.

올해 3분기 모바일뱅킹을 포함한 인터넷뱅킹서비스의 하루평균 이용건수는 전분기 대비 3.4% 증가한 4573만건이다. 이용금액은 33조1829억원으로 전분기와 비슷했다.

인터넷뱅킹 이용고객은 8412만명(중복 포함)으로 전분기보다 2.5%(202만명) 증가했다.

/연합뉴스

박종진
채널A 보도본부 경제부장
기자

뉴스A

매주 월~금 오후 4시 50분

이영돈
채널A 제작담당상무
프로듀서

매주 월~금 오후 4시 50분 **매주 월~금 밤 9시 50분** **매주 금 밤 11시**

CHANNEL A

[광주] 남구 서구 광산구 동구 북구 (CMB) **18**

[광주] 동구 북구(광주방송) **20**

순천 여수 여천 광양 고흥 **14**

나주 화순 보성 담양 구례 곡성 **18**

목포 신안 무안 강진 완도 **16**

해남 영암 진도 장흥

스카이라이프 **13**

IPTV **18**

CHANNEL A www.ichannel.a.com **채널A**